

'20년 3월 아랍에미리트(UAE) 주요 경제 동향

2020. 4. 5.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|
| 1. 경제일반 | / p.1 |
| 2. 산업 | / p.5 |
| 3. 자원·에너지 | / p.6 |
| 4. 건설·플랜트 | / p.7 |
| 5. 농업·식품 | / p.11 |

주 아랍에미리트(UAE) 대사관

1. 경제일반

□ [경기지수] '20.2월 구매자관리지수(PMI)*는 49.1로서 '09.8월 두바이 채무위기 이후 최저 수준

* PMI(Purchasing Manager's Index)는 비석유부문(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소매업 등 대상) 경기동향 지수로서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IHS Markit이 발표중인 바, 관련 보도 등 요약

- PMI는 '19년중 지속 하락하여 왔으며, 금년 1월 들어 09.8월 이후 처음으로 50미만(49.3)으로 하락
- 신규 주문 감소 등 전반적인 수요 하락, 생산(output) 감소* 및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 축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

* 주재국 PMI 조사에서 생산(output)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최근 10년중 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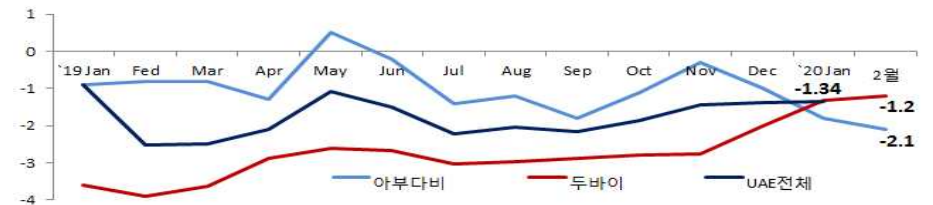
<UAE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>



□ [소비자물가] '20.2월 소비자 물가는 '19.1월 이후의 하락추세* 지속

* '19년 연간으로는 아부다비 0.8% 하락, 두바이 2.98* 하락

- 아부다비는 2.1%, 두바이는 1.2% 각각 하락 (각 전년 동월 대비)



* 2월 UAE 전체의 소비자 물가 동향은 연방통계청(Federal Competitiveness & Statistics Authority)의 통계 발표 스케줄상 4.4일 예정이나, 4.5일 현재 미발표

□ **[통화금융 지표]** 20.1월 주재국 통화지표는 M1 2% 감소, M2 0.04% 감소, M3는 0.2% 증가

* M1 : (20.1월) AED 5,404억 → (20.2월) AED 5,294억,
현금 증가(AED 16억↑)에도 불구하고, 요구불예금(M1의 84.4%) 감소(AED 127억↓)

M2 : (20.1월) AED 1조 4,268억 디르함 → (20.2월) AED 1조 4,263억
준요구불예금* 증가(AED 105억↑)에도 불구하고 M1 감소에 따라 감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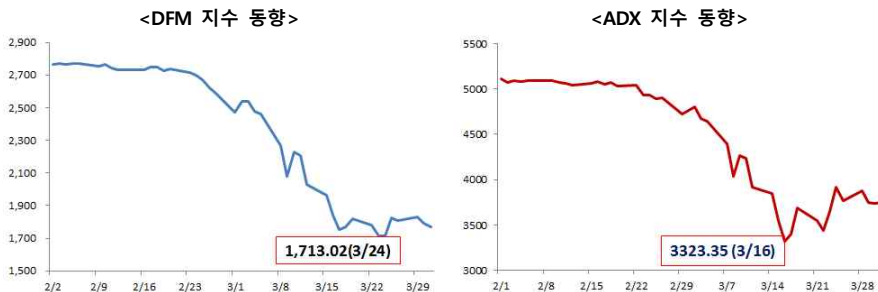
M3 : (20.1월) AED 1조 6,897억 → (20.2월) AED 1조 6,937억,
정부예금 증가(AED 45억↑)가 M1 및 M2 감소를 상회

※ **M1** = 현금 + 요구불예금, **M2** = M1 + 준통화(저축성예금 + 거주자
외화예금), **M3** = M2 + 정부예금

- '20.2월 총신용(Gross Credit)은 AED 1조 7,455억으로서 '20.1월(AED 1조 7,369억) 대비 0.5% 증가
- 이중 민간부문 신용(대출 등)은 AED 1조 1,406D억으로서 '20.1월(AED 1조 1,375억) 대비 0.3% 증가

□ **[증시 동향]** 유가 폭락 및 전세계적 COVID-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축소 등 영향으로 두바이 및 아부다비 증시 모두 대폭 하락

- 3월중 두바이 지수(DFMI)는 28.40%, 아부다비 지수(ADX) 지수는 20.94% 하락



□ **[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]** 주재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.4일 0.5%, 3.16일 0.75% 인하 등 두차례에 걸쳐 1.25% 인하

- 고정환율(dollar-peg) 국가로서 美 **FRB**의 기준금리 인하(3.3일 0.4%, 3.15일 0.75% 각 인하)에 연동함과 아울러,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경기 위축 등 대응 목적으로 평가

□ **[COVID-19 대응 경기부양책 발표]** 중앙은행, 연방정부, 아부다비 및 두바이 정부는 총 AED 1,265억(340억불 상당)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

- **(중앙은행)**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지원 및 은행권 유동성 확대를 위해 AED 1000억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 발표(3.14일)
 - AED 500억은 은행권에 대한 담보부 무이자 대출을 통해 공급 →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은 기업 및 가계 대출기간 연장 등 실시
 - 나머지 AED 500억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달성 예정
- **(연방 정부)** 고용허가수수료(work permit fee) 등 고용 및 기업활동 관련 부담 완화를 AED 160억 규모의 지원 추진(3.22일)
- **(아부다비 정부)** 각종 수수료 면제, 수도·전기료 인하(AED 50억 상당),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총 AED 90억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(3.16일)
- **(두바이 정부)** 수도·전기료 10% 인하, 도로통행료 면제 등 AED 15억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(3.12일)

□ **[통행제한 등 실시]** COVID-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제한, 임시휴교 및 온라인 강의 등 실시 →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, COVID-19 확산 저지에 총력

- 3.8일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 휴교 및 원격 교육(distance learning) 실시
 - * 당초 4주간 휴교 예정이었으나, 3.22일주부터 학년말(6월)까지 원격 교육으로 전환
- 3.10일부터 주요 문화시설, 관광지 운영 중단

- 3.24일부터 2주간 여객 항공편 및 경유 항공편 중단 조치
- 3.26일부터 주간 외출제한, 야간 통행금지, 집회·모임 금지 등 강력한 통행제한 조치 및 야간 방역 실시(3.26일 ~ 4.5일)
- 이외에도 정부기관은 물론 사기업 부문에서도 광범위한 재택근무 실시

□ **[외국인 지분 100% 허용 분야 확대]** 100%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는 산업활동 분야를 122개 추가

- 식·음료 제조, 항공기 정비 등 51개 산업활동, 연구개발(scientific R&D) 등 52개 서비스업, 곡물 재배(cultivation of grains) 등 19개 농업 분야에 대해 100% 외국인 지분을 허용 예정

※ UAE 정부는 '18년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개정 후 '19년에도 우주, 운송, 전문 서비스 등 13개 분야 122개 산업활동에 대해 100% 외국인 지분 허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프리존(Free Zones)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100% 외국인 지분 보유 허용

□ **[부가가치세 신고액 증가 등]** 연방 국세청(Federal Tax Authority)은 '19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발표(3.16일)

* UAE는 정부 수입원 다양화 및 석유 의존 완화 등을 위해 '18.1월부터 부가가치세제(세율 5%) 시행

- 등록 사업자(bussesses registered for VAT) 7% 증가(→ 320,440개)
- 부가세 신고액(Tax Returns)은 '18년 대비 21% 증가

2. 산업 동향

□ **(아부다비 2019년 신규 사업허가 건수 전년대비 64% 증가)** 아부다비 경제 개발부는 2019년 신규 사업허가 건수가 18,628건으로 전년 대비 64% 증가하였다고 발표함. 2019년 갱신된 사업허가 건수는 80,477건이고 총 허가 등록 건수는 17만 2,577건이라고 함.

- 2019년에 신규로 발급된 허가 중 대다수는 상업허가(Commercial License)로 17,642건이며, 전문허가(Professional License)는 403건, 직업 허가(Occupational License)는 229건, 관광허가는 176건, 산업허가는 144건, 농축수산물허가는 34건임.

□ **(세계최초 인공지능 대학원 8월 출범)** 아부다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설립한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인 MBZUAI는 UAE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오는 8월 강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함.

-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운영될 동 대학원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제공의 조건으로 2020년 학생을 모집한 결과 3.10일 현재 전세계에서 1,200여명이 지원하였는데 계속 추가 지원을 받고 있음.

□ **(두바이 제벨알리 프리존, 인허가 수수료 인하)** 두바이의 최대 프리존인 제벨알리 프리존은 사업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등록 및 사업운영을 위한 각종 수수료를 50~70% 인하함.

* 제벨알리 프리존은 7,500여개의 사업체가 입주하여 두바이 GDP의 1/3을 담당

□ **(코로나 여파로 노트북 판매 20% 증가)**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, 원격 수업의 영향으로 UAE내 태블릿, 게임기 및 노트북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3월말 2주 사이에 판매량이 20% 증가하였고, 저가제품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함. 그러나, 스마트폰은 수요가 늘지 않고 가격도 상승하지 않음

3. 자원 · 에너지 동향

- (아부다비석유공사 일일 100만배럴 증산 결정) 3.11일 아부다비석유공사는 OPEC+의 감산 합의 실패와 사우디의 증산 결정에 따라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은 일일 400만배럴로 100만배럴 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함.
 - 아부다비석유공사는 고객들이 원유가격을 사전에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3월 및 4월분 원유가격 프리미엄을 사전 결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함.(지금까지는 사후 결정)
- (아부다비 세계최대 태양광 낙찰자 선정 연기) 3.28일 아부다비 에너지부는 2GW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낙찰자 발표를 연기함.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 경제상황과 석유 및 재생에너지 가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함.
- (두바이, 솔라파크에 R&D센터 설립) 3.8일 두바이수전력청은 총 5GW 규모로 조성 중인 MBRAM 솔라파크 내에 4,400㎡ 면적의 R&D센터를 개소함.
 - 이 R&D센터는 재생에너지, 스마트그리드 기술, 에너지 효율향상에 중점을 둔 UAE내 유일한 연구센터로서 연구자의 70%를 자국민으로 고용하여 기술 국산화와 자국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4. 건설·플랜트 동향

- 하싼(Hassyan) 담수화프로젝트, 하루 1.2억 갤런 생산 목표로 추진
 - 두바이 수전력청(DEWA)은 하싼 담수화사업을 위한 입찰에서 지역 업체(Utico) 및 사우디 업체(Acwa Power) 2곳의 제안서 접수
 - 입찰업체가 제시한 담수공급 요금(0.30614달러/큐빅미터)은 지금까지 체결된 담수화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
 - * 입찰 참가업체 : Utico (local): \$0.30614 a cubic metre
Acwa Power (Saudi Arabia): \$0.31784 a cubic metre
 - 금년 2분기까지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, 23년 8월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담수화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, 첫 번째 6천만 갤런 생산을 위한 블록A는 23년4월, 나머지 6천만 갤런은 23년8월에 생산할 계획
- 푸자이라(Fujairah) 항 확장 위해 2억 4백만불 투자 검토
 - 향후 2년간 204백만불을 투자하여 항구내 60만 큐빅미터 터미널 조성 등 주요시설 확장 등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논의 중
 - 푸자이라 항은 추후 루와이스 산업도시와 연방 에티하드레일로 연결하는 것이 계획되고 있음
 - 푸자이라 항은 연간 7억배럴 오일 처리능력이 있고, 세계 2번째로 큰 병커유의 허브이면서 22년에는 크루드오일 저장량이 2배로 증가
- 두바이, 미래운송수단으로 스카이 포드(Sky pods) 개발
 - 두바이 도로교통청은 스카이포드(Sky pods) 교통수단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을 위해 영국 빔카(BeemCar)사와 협약서 서명
 - * 도로교통청 사무총장과 영국 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 거행

- 스카이포 교통수단은 공중에 설치된 단일 궤도에 매달려 움직이며, 일반 대중교통수단보다 작고 가벼우며 부지면적도 적게 차지하여 효율적 수단으로 평가

- 2030년까지 두바이 자유훈송수단이 이동수단의 25%를 차지토록 하는 자율주행 전략과 연계되고, 대중교통수단 통합화에도 부합

□ UAE, 금년 2월까지 건설투자 규모는 22억불에 그쳐

- 건설투자계약 건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

- 2019년 계약은 260억불, 이는 18년 300억불보다 13% 감소한 수치이며, 18년도 실적은 17년 339억불보다 11.5% 감소

- 분기별로 19년 3분기 58억불, 4분기 3.9억불, 2020년 2월까지 22억불 실적으로 20년 1분기도 실적 감소 예상

- 실적감소는 부동산 과잉공급에 따른 신규 투자 감소가 원인이고, 정부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인프라투자 등에 역점

- 정부주도사업의 프로젝트로 18년6월 에티하드 철도망사업이 한국(SK건설)참여한 컨소시엄 업체에서 수주

- 정부주도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더라도 민간 부동산 부문을 대체하는데 부족한 수준

- 특히,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중보건 관련 사업들이 우선시되어 신규 건설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뤄질 것으로 예상

□ 에드녹(Adnoc), 200억불 사워가스 개발패키지 상업입찰 일정 확정

- 국영석유회사 에드녹은 200억불 수준의 하일(Hail) 가샤(Ghasha) 사워가스 개발패키지 위한 상업입찰 제출일자를 3.29일로 확정

- 지난 11월까지 EPC 개발방식 2~4패키지와 기술패키지 1에 대한 기술평가 서류가 제출되어 협의가 진행 중

- 프로젝트 규모 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추진일정을 연장할 예정

* 개발패키지별로 4개씩 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되었고, 국내업체(삼성엔지니어링, 현대건설)가 EPC 패키지(2~4) 입찰에 참여 중

□ 경기부양책 44억불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건설 프로젝트 등 지원

- UAE 연방정부는 지난 3.22일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한 44억불(AED160억) 경기 부양책을 승인

- 연방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금을 15일 이내 지급하고 공급 업체의 계약체결 지연 발생시 부과하던 벌금 면제

- 코로나-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부양책에는 중소기업 지원, 근로허가 수수료 면제 등 포함

- 참고로 UAE 전국에는 계약규모로 1억불, 자산가치로 936억불에 해당하는 총 30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

□ ASGC, 팔래스 레지던스 & 호텔 프로젝트 수주

- 로컬기업 ASGC가 Emaar에서 발주한 Palace Residences & Hotel 건설 사업을 수주

- 동 프로젝트는 Dubai Creek Harbor development 내에 위치하며, 호텔 및 주거용으로 2개의 44층 타워를 건설하는 공사

- 향후 팔래스 호텔은 Emaar Hospitality Group의 Address Hotel & Resort가 운영 예정이며, 타워 설계 컨설턴트로 Aecom이 참여

□ 영국 Petrofac, 4천억불 가스저장시설 EPC 프로젝트 수주

- 사르자 석유국영회사(SNOC)는 Moveyeid 가스저장시설 프로젝트 EPC 사업에 대해 영국 Petrofac社와 4천억불 계약
- Moveyeid 가스 저장시설 단지는 08년 두바이 Margham 가스시설 개발에 이어 UAE에서는 2번째 시설
- 동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고압압축시설, 고압파이프 및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, 새로운 가스 정을 시추하는 것까지 포함

□ 아부다비, 마크타 다리 확장공사 계약 입찰

- 아부다비 섬과 칼리파 도시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 마크타 (Maqta) 다리 확장공사에 대한 입찰 4.1일 마감
- 마크타 다리 공사는 도로접근성 개선 위한 사업중 하나로 교통부의뢰로 아부다비 행정서비스 기업(Musanada)에서 발주
- * 참고로, 도로접근성 개선을 위해 아부다비 마리나 지역과 코니시 도로 연결, 칼리파도시에서 아부다비 섬 방향 출구 확장 등 포함
- 작년 설계/감리 업체로 레마론 업체(Khatib&Alami)가 참여하고 있으며, 이번 확장공사에는 4개 국내외 업체가 참가 전망
- * 입찰 참가 예상 : 지역(Agility Eng & Contracting), 두바이(Dutco), 지역/벨기에 (Six Construct Abu Dhabi), 중국(CSCEC)

5. 농업·식품 동향

□ UAE 정부, 비상시 식량공급 확보를 위한 법률 통과

- UAE 대통령은 위기상황에서 전략적 식량 비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량 공급을 규제하는 연방법률 2020년 제3호를 승인함(3.30.).
- 동법에 따라 소매상 등은 공급량, 식량 재고, 보관 상황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, 국가비상위기관리청(Ncema)의 지시에 따라 식량 재고를 배분할 의무 또한 갖게 됨
- UAE 경제부는 동법을 집행하고, 국가비상위기관리청(Ncema)과 협력하여 식량 수급 안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.

□ UAE 식품업체, 이란산 수입 식품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대응 중

- UAE 현지 소매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란산 수입 식품들의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음.
- UAE가 이란에서 피스타치오, 샤프론, 건포도, 대추야자, 신선과일 및 채소 등을 주로 수입하며, 연 수입액은 1억 3천만 달러 규모
- 이란으로부터의 선적물량이 확연히 줄어들면서, UAE 소매업체들은 곧 다가올 라마단 시즌을 대비한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크며, 수요가 많은 이란산 건과일 등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힘

□ UAE 음식 배달업체,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접촉식 배달 도입

- UAE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조치에 따라 UAE 식당들은 향후 식당 내 서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배달 서비스 및 테이크아웃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UAE 음식 배달 앱 운영사들(Zomato, Uber Eats, Talabat 등)은 ‘비접촉식 배달’이라는 옵션을 통해 주문자가 배달 앱을 사용하여 음식 주문 및 선불결제하면 배달시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.
- 비접촉식 배달은 음식 배달 서비스 사용자 급증에 부응하고,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배달 업계의 대응 조치로 볼 수 있음